

한마음한몸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 가톨릭평화신문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1고린 10, 17)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그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저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새로운 본부장으로 부임한 김정환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를 계기로 설립된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본격적으로
그 운동을 시작한 1989년은 저의 인생에서 중요한 해였습니다.

제가 사제 성소를 꿈꾸며 신학교에 입학한 해이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셨던 해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황님과 젊은이들이 허물없이 만나 함께 나누었던 성체성사 정신,
100만 명이 광장에 모여 봉헌한 장엄미사 성체성사 거행의 감동과 기억들은
아직도 제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는 우리 교회에 ‘한마음한몸운동’이라는,
성체성사의 깊은 뜻을 실제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형태의 운동으로 그 열매를 남겼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설립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일입니다.
어느덧 성장한 본부는 작년 30주년을 맞아, 그동안 걸어온 생명존중과 나눔실천의 길을 되돌아보고
30년간 쌓아온 성과를 앞으로 잘 이어나가자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더욱이 우리 본부의 설립자 故 김수환 추기경님 선종 10주년입니다.
그분은 평소에도 늘 ‘남에게 밥이 되어 주는 것만 남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몸소 밥이 되어 주시고 그렇게 그리시던 주님 품으로 떠나셨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아 예수님처럼 서로 밥이 되어 주는 삶, 서로에게 먹히는 삶,
남들에게 내어주기 위해 부서지고 쪼개지고 나뉘지는 성체와 같은 삶을 사는 운동을
저 자신부터 본부의 팀원들과 함께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한마음한몸

기획특집

- 4 다시 한번, 사랑을 생각합니다
- 6 일상적인 생각이 비범한 나눔으로
- 7 “장기기증은 내 신념을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 11 모범으로 전해지는 신앙

한마음한몸 리포트

- 12 2019 지구촌 빈곤퇴치 리포트

인터뷰

- 14 인생에 한 번쯤은 필요한 경험
- 18 생애첫기부 & 기념일기부
- 20 본부 소식
- 22 희망의 샘물을 선물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커버스토리

삶 자체가 커다란 가르침인
故 김수환 추기경. 2009년,
그의 선종 이후 장기기증을 막연히
두려워하던 사람들에게 생명나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다시 한번 그의
사랑과 나눔을 기억합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고(故)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설립하시고 초대 이사장을 지내셨던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1989년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를 준비하면서
생명존중과 나눔실천이라는 대회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헌혈, 헌안운동을 벌이며 교회와 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현재까지 국내를 비롯한 지구촌 50여 개국을 대상으로 나눔운동과
생명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통권 41호 | 2019년 봄호

발행인 유경춘
발행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발행일 2019년 봄
편집·디자인 슬로워크
주소변경 및 문의 모금관리팀
T 02)727-2288
E obos@catholic.or.kr

소식지 한마음한몸은 홈페이지(www.obos.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소식지의 저작권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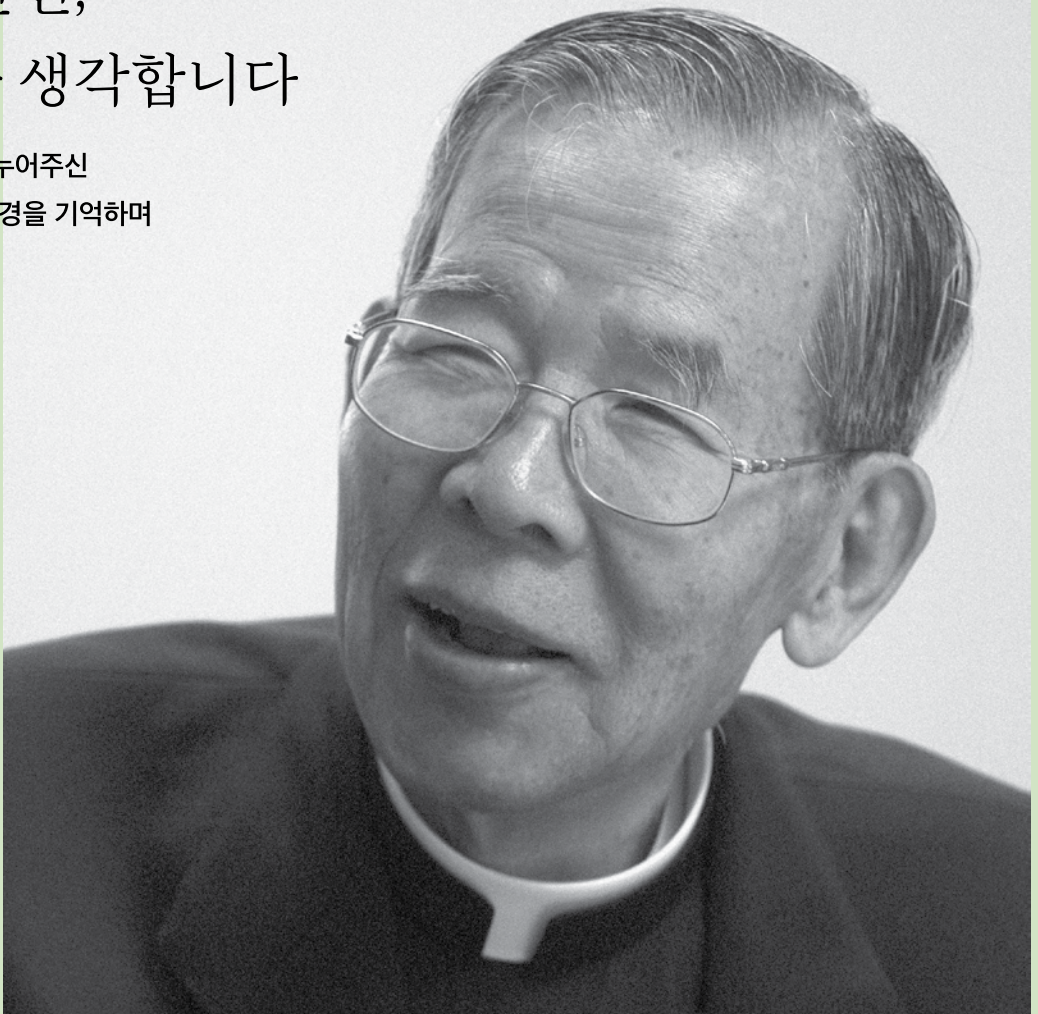
Copyright © ONE BODY ONE SPIRIT. all rights reserved

(H) www.obos.or.kr
f facebook.com/oboscorea
@ onebody_onespirit
▶ www.youtube.com/obosvideo

다시 한번, 사랑을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나누어주신

故 김수환 추기경을 기억하며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항상 약자들과 함께 하셨던 분, 늘 따뜻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아주시고, 종종 위트도 넣어 대화를 이어가셨던 추기경의 모습은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생생합니다.

1989년, 김수환 추기경이 직접 세우고 초대 이사장을 지내셨던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성체성사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살아가는 실천운동으로 한마음한몸운동을 전개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안구기증, 생명나눔 문화의
꽃으로 피다

김수환 추기경은 1989년 본부 설립 당시 각막 기증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2006년에는 사제성화의 날을 맞아 뇌사 시 장기기증을 비롯한 사후 각막기증을 새롭게 다짐하셨으며, 2009년 선종하시면서 약속하신대로 이웃을 위해 당신의 두 눈을 선물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김 추기경의 선종 이후, 생명나눔과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일어났습니다. 한평생 '너희와 모든 이들을 위하여'라는 자신의 신념을 온몸으로 실천하며 떠나신 김 추기경이 세상에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인 각막기증이 우리 사회에 희망의 씨앗이 되어 생명나눔 문화의 꽃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그후 10년, 지금 장기이식이 필요한 사람 30,544명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통계에 의하면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대기 환자 분들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말 기준 30,544명에 이릅니다. 이분들이 장기이식을 받기까지 평균적으로 4년 6개월(2017년 기준)을 기다려야 하고, 2017년에는 대기 중에 사망하신 분이 1,610명에 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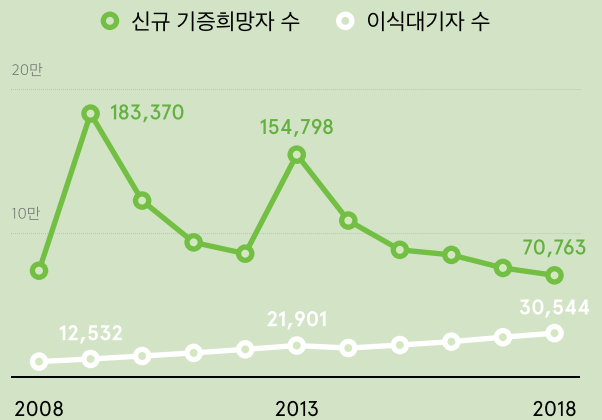
장기이식 외에는 더 이상의 치료방법이 없는 말기부전 환자도 뇌사 기증자의 도움을 받으면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장기기증이 그 자체로 삶의 희망이고 새로운 생명입니다.



왼쪽부터 각막기증 신청서에 서명을 하시는 모습, 김수환 추기경의 장기기증 신청서

국내 장기기증 희망자 수와 이식 대기자 수

단위: 명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가톨릭교회는 교리서를 통해 신자들에게 ‘죽은 뒤의 장기기증은 훌륭하고 칭찬받을 일이며 현신적인 연대의 표징으로서 장려되어야 한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296항)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을 통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느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이기며, 교회는 아무 대가없이 윤리적으로 합당하게 행해지는 뇌사 시 또는 사후 장기기증을 사랑의 실천으로 권고하는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우리 곁을 떠난지 10년. 2019년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김수환 추기경의 메시지, 그리고 아무 대가 없이 실천하는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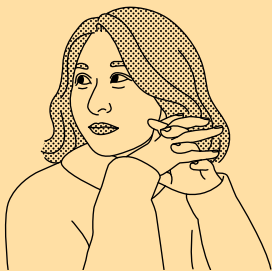
온라인 장기기증 신청 www.obos3042.or.kr

장기기증 관련 문의 가톨릭생명나눔센터 1599-3042, 서울 명동성당 1898 지하광장

일상적인 생각이 비범한 나눔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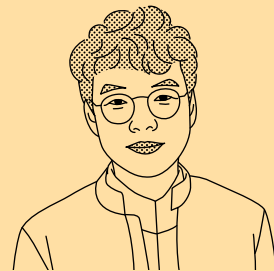
용인 상현동성당 장기기증 캠페인에서 만난 사람

2019년 3월 17일, 주일 미사가 끝난 낮 12시 10분경.
상현동 성당에서 신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그들을 맞이하는 장기기증 캠페인팀과 헌혈 캠페인팀.
신자들은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나란히 앉아 장기기증
서약서를 적습니다. 채 20분도 지나지 않아, 75명이 장기기증
서약서를 작성해주셨습니다. 30대의 젊은이부터 7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서약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담담하게 빛났습니다.



윤보영^{유안나} (53)

전부터 해야지 하고 생각했던 거라,
특별하기보다는 ‘이제 기회가 왔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봉사자분이 오늘 할 거라고 예고하셨고
미사 중에도 말씀하셔서요.
(기증을) 살아있을 때 하는 게 아니니까
무섭지는 않았어요.



김종진^{다니엘} (52)

유교적인 가치관이 있어서 그런지
죽었을 때 내 몸을 어떻게 한다는 일이 두렵고
약간 거리낌도 있었어요.
그래도 신자로서 나눔에 대해 생각했을 때,
내가 내어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접한 게
장기기증이어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하고 나니 삶에 대한 느낌이 사뭇 다르네요.

※ 본부는 연중행사로 장기기증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지난 2019년 3월에는 수원교구와 함께 사순시기를 맞아 정자동 성당, 상현동 성당, 광주성당 등에 찾아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장기기증은 내 신념을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장
양철우 교수 인터뷰

“수술을 하지 않고 이식에 관여하는 묘한 위치에 있어요.”
소개를 부탁하자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인 양철우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그는 신장내과 전문의인 동시에,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에서 환자들을 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하는 리더입니다. 외래, 입원실, 중환자실 등으로 이루어진 장기이식 유관부서가 잘 돌아가도록 조정하고, 인력을 관리하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일은 양 교수의 조금은 특별한 주 업무입니다.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장 양철우 교수가 본인의 장기기증 희망등록 카드를 보여주고 있다.



양철우 교수는 2007년부터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가 몸담고 있는 서울성모병원은 50년 전, 우리나라 최초로 장기이식(신장)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 의학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자, 당시 명동성모병원이 대학병원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는 일이었습니다. “가톨릭 이념과 가장 일치하는 의료 행위가 이식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걸 해낸 거죠.” 그는 다른 병원이 아닌 현재의 ‘서울성모병원’이 그 수술을 성공한 곳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양 교수는 과거의 명성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센터에서 매년 목표를 세워요. 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숙제 하나, 또 매년 5~10%씩 성과를 높이는 목표 하나를 잡습니다.” 보통 저녁에서 다음날 새벽까지 진행되는 이식 수술, 가장 민감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이곳의 업무 강도는 굉장히 세지만, 장기이식센터 식구들의 사명감 또한 강합니다. 이미 그는 주변에서 ‘발만 담그지 왜 그렇게 몸을 다 담갔느냐’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많은 이식 환자와 친한 삶을 함께 해왔습니다. “발만 담가가지고는 굉장히 발전이 더딘 게 이식 분야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생체이식도 가능한 ‘신장이식’ 전문의지만, 그는 결국 뇌사자 또는 사후 기증이 장기이식의 주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장기 일부를 떼어준다는 것은, 이후 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동시에 수술이라는 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인간은 통증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배우자에게 신장을 준다고 하더라도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니 당장 배를 열고 내 콩팥을 누구에게 주는 일이 쉽게 그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 나라의 뇌사자 이식률은 전체 장기이식의 절반 이하인 40% 수준입니다.

2009년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 기증으로 장기기증이 불처럼 늘었다가 다시 국민적 관심이 낮아져 느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장기기증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기증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에 논란이 되었던 일부 기증자 예우 문제 이후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슈가 생기면서 많은 관계 부처들이 모여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때 종교적인 의식이 꼼꼼히 담긴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의 예우 지침이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실 때부터 장기이식이 끝나고 영안실로 모실 때까지 자기 가족처럼 해주면 돼요.” 그가 정리했습니다. “‘지지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기증하겠다는 결정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가족으로서 죄의식을 느끼시기도 해요. 뇌사자와 주변 가족을 어떻게 위로하고 장기기증 하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해드릴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아픔일 줄만 알았던 가족의 기증 경험은, 때로 대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돌아오기도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정책 소개에 따르면 (2018년 3월), 2018년부터 <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 표준 매뉴얼>이 모든 병원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유가족이 ‘(기증할 때는)
정말 가슴 아팠는데,
하고 나니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가족처럼 잘 대해줘서 고맙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이 아름답더라.’라고 해주시기도 해요.
그럼 감동을 받고
우리는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장기기증자 예우 Q&A

Q1.

병원마다
기증자 예우방법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이제 뇌사자를 관리하는 모든 병원에
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 표준 매뉴얼이 적용되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Q2.

기증 후 기증자 이송을
유가족이 직접 하나요?



아닙니다. 전담 이송기관에서 유가족이 원하시는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이송하고 있습니다.

※ 안구기증의 경우, 보통 시신이 있는 장례식장으로
직접 의료진이 나가서 기증절차를 시행하므로
기증과 상관없이 일반 장례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외 기증자 유가족
예우제도

모든 기증자 유가족 대상으로 기증 후 동행서비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가족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유가족 자조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성모병원은 CMC(Catholic Medical Center) 네트워크를 통해 뇌사자 발골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외 8개 지역 성모병원에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뇌사자 발골을 서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1년에 10명 남짓이던 서울성모병원 자체만의 뇌사자 이식 건수는 50~60명 정도로 늘어,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역시 더 많은 사람들이 장기기증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양철우 교수의 방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영어로 쓰여있다고 합니다. ‘하늘나라 갈 때 장기는 두고 가십시오. 살아 있을 때 장기를 깨끗하게, 아껴쓰십시오. 당신의 장기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글귀는 스스로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양 교수만의 거울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불의의 어떤 일이 오는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삶과 죽음, 또 다른 새로운 삶의 경계에서 일하는 그가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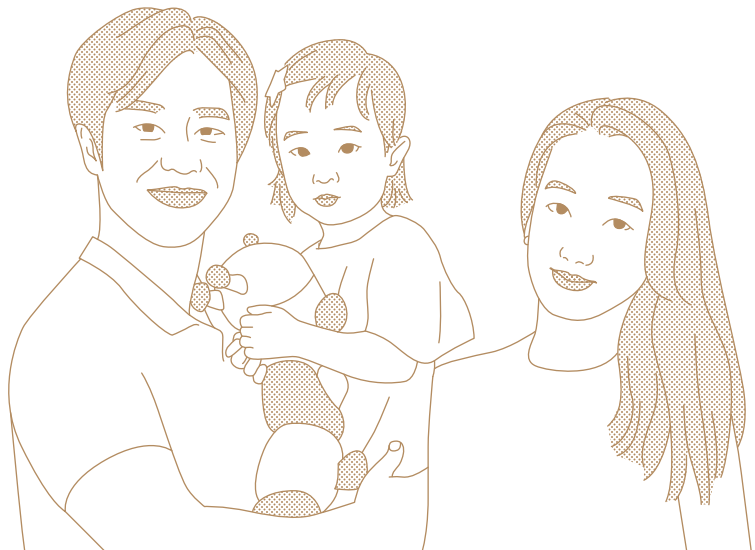
“장기기증은 갑자기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기증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를 요청하자, 양 교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과연 장기를 기증할 만한 선의의 마음이 있는가’를 자문하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라고 권했습니다. “내 마음에서 ‘Yes’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사람을 살리는 장기기증에 꼭 동참해주세요.”

그는 언젠가 병원 성당 벽에 장기기증자를 기억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메모리얼 월(기억의 벽)도 만들고 싶다.



모범으로 전해지는 신앙



송병주 사도요한, 강문희 크리스티나 가정

모범이 자녀교육에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면서도, 간혹 팔심인데 콩 나길 바라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평소엔 남에게는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지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범은 관념과 입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말해야 마음의 귀에 들리기 마련인데 말입니다.

송병주 사도요한, 강문희 크리스티나 부부. 이들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모범’을 아이에게 물려주고자 노력하는 가정입니다. 신앙의 모범을 바탕으로, 기부도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마음하눔운동본부에 꾸준히 기부하고 있는 것도 아이에게 기부하는 사랑의 마음이 전해지길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생애첫기부는 저희 부부에게도 참 감동적이고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부모가 되고 보니, 주변을 돌아보는 일이 많아졌어요. 생애첫기부 전달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짐했습니다. 매년 아이의 생일에 기부를 하자고. 큰돈이 아니더라도 꼭 실천하자고요.”

부부는 아이 선아의 첫 돌 축의금 기부를 시작으로 매해 생일마다 기부를 잊지 않습니다. 산타가 되어주세요 캠페인, 지역의 보육원 돕기 등 기회가 될 때마다 나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눔과 사랑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부부의 따뜻한 마음은 부모로부터 전해진 유산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전 불교신자였는데 시어머니께서는 한번도 세례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을 삶으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범에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기부를 많이 하고 계신 부분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장인어른께서 위암으로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기신 적이 있어요. 당시에 의사들도 힘들 것 같다고 말했고, 아버님도 헛것이 자꾸 보이신다고 하셔서 마음의 준비까지 했었습니다. 아내는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9일 기도를 반복하며 아버님 곁에서 병간호를 했었습니다. 그때의 기도 덕에 다시 새 삶을 선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이도 9일 기도 태교 덕분에인지 아주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돌아켜보니 모든 게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부부는 그 감사함을 갖고자 기부를 시작했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희 거울인 것 같아요. 아이에게 신앙도 따뜻한 마음도 잘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퍼지면 언젠가는 하느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을까요.”

2019 지구촌 빈곤퇴치 리포트

지구상에서 가장 취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최우선으로, 2019년에도 본부는 되풀이되는 빈곤의 고리를 끊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를 만드는 크고 작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 지진피해 가구의 사회 경제적 역량 강화 지원

우간다

- 우간다 운주구 마을 지역 학교 및 포레스의 성마르티노수도회 태양광 설치 지원

베냉

- 아보메 지역 청년창업과 농민역량강화를 위한 농업진흥센터 지원

부룬디

- 식수원과 급수시설 개발 및 관리

2019년 국제협력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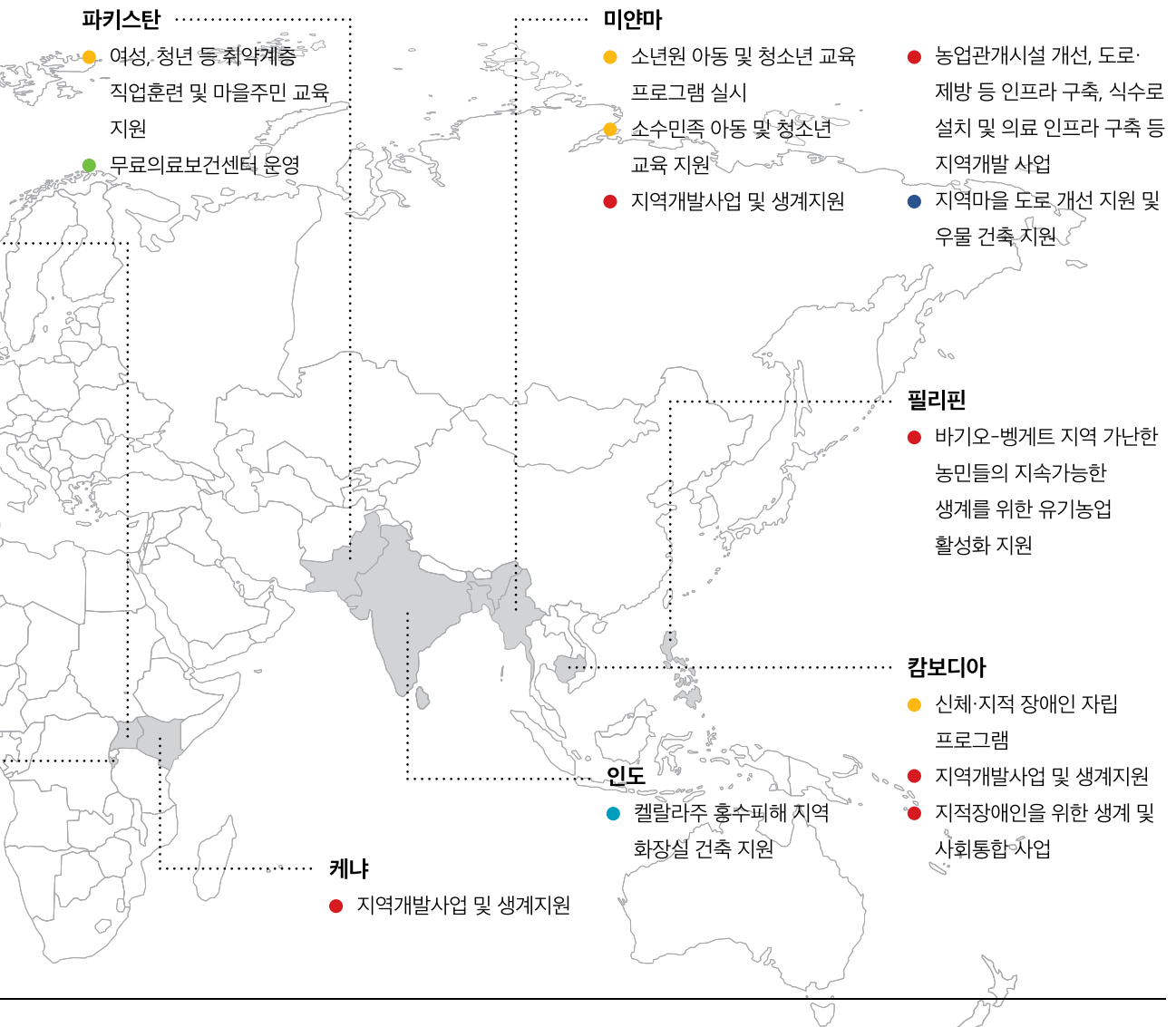
교육

교육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본부는 지역사회를 도와 아동과 청소년부터 청년, 여성,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합니다.



통합생계지원

본부는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재정과 교육을 지원합니다. 가난과 싸우는 영세 농부들이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보건의료

쉽게 예방, 치료할 수 있는 질병들임에도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본부는 지역사회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현재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치료와 질병 예방을 지원합니다.



인도적지원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빈곤이 발생하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본부는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식량과 깨끗한 물, 보금자리와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진정되면, 피해민들의 지역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장기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해외특별지원

최빈국 및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소규모 형태의 사업들 중 시급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인생에 한 번쯤은 필요한 경험



왼쪽부터 띠앗누리 인솔자 박진솔 아네스, 띠앗누리 26기 고혜민 로사, 박종철 하상바로

인솔자인 진솔 님, 그리고 띠앗누리 26기 해민 님과 종철 님 반가워요. 우선 단원분들은 이번에 띠앗누리에 함께하게 된 계기가 뭔지 궁금해요.

고혜민(22, 이하 고) 엄마가 먼저 띠앗누리를 아셨어요. 세상을 보고 오라며 제게 추천해 주셨는데, 고민하면서 미웠었어요. 그러다 최근에 행복의 의미를 찾고 싶어졌었어요. ‘내가 좋고 편하면 행복이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진짜 이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종철(27, 이하 철) 개인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니면 해볼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해서 지원했습니다.

“내가 좋고 편한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진짜 이기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띠앗누리로 떠나게 되었어요.”

자료를 보니 국내 훈련부터 일정이 빡빡해요. 출국 전에 한국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웠나요?

가정에서의 나, 학교에서의 나. 누구에게나 한두 개 이상의 소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 ‘지구 공동체 속의 나’이기도 하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인생에 한 번쯤, 내가 지구 공동체 소속임을 체험해보면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그 경험을 대신 해본 띠앗누리 26기를 만났습니다.

철 우선 언어를 배웠어요. 인사 등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예요. 지구시민의 관점에서 빈곤이나 인권, 환경 등에 관한 이슈도 배웠고, 현지에서 진행할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도 배웠어요. 안전 문제나 긴급상황에 대처법을 익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언어를 재밌게 배웠을 것 같은데, 현지에서는 어떤 캄보디아어를 가장 많이 썼어요?

고 무이, 뽀, 바이(하나, 둘, 셋)요. (웃음) 교육할 때 같이 시작하더라고요.

띠앗누리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체험형 지구시민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지구촌의 문제를 탐구하고 캄보디아, 네팔 등 개발도상국에서 약 2주간 그곳의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고, 마을 공동체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연 2회 진행되며, 만 19세 이상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청년이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총 4번의 큰 이동을 했어요.

모두 궁금하지만, 주요 활동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신다면요?

Part 1 — 캄보디아 이해하기 | 프놈펜에서의 하루

고 본부 협력 기관인 캄보디아 예수회 뿌리엵 소에 가서 그곳에 대한 소개를 들었어요.

박진술(이하 박) 그밖에 캄보디아의 사회문화를 이해하는 강의를 듣기도 했고요, 캄보디아의 슬픈 기억 중 하나인 크메르루즈와 관련된 장소에 가서 아픈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Part 2 — 캄보디아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환대하기 | 캄퐁코에서의 8일

철 가장 긴 일정 동안 캄퐁통의 캄퐁코 마을에서 아이들, 청년 및 주민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체활동, 미술활동, 캠페인 등 한국에서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지에서 진행했습니다.

고 현지 요청에 따라 환경교육 차원의 ‘쓰레기 퇴치 작전’에 관한 연극을 기획하여 상연하고, 함께 마을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캠페인 활동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정말 많이 얻은 시간이었어요.

Part 3 — 나와 나를 둘러싼 세계에 대해 생각해 보기 & 앙코르 문명 탐방 | 시엠립에서의 3일

박 치열했던 활동을 잠시 뒤로 하고, 시엠립의 ‘메타 깔루나 센터’라는 명상센터에서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와 우리를 돌아보았던, 감사하고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철 이때 우연히 단원들이 함께 만든 ‘겨울 안에 여름’이라는 노래를 완성했어요.

Part 4 — 함께해서 더 즐거운 시간 떠났누리 26기와 반띠에이 뿌리엵 | 건달에서의 2일

고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기관이자, 본부의 오랜 협력기관인 반띠에이 뿌리엵에 들렀어요. 그곳 분들이 체육 활동을 좋아하고 잘 하셔서 함께 농구, 배구 등 스포츠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 한국에서는 어떤 장애가 있냐고 묻는 자체가 실례인 것 같은데, 이곳에서는 장애가 있어도 자존감을 북돋워주는 환경이 잘 되어 있던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캄보디아는 정말 덥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체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질텐데, 일정도 빡빡했던 것 같아요. 가장 적응이 힘들었던 부분은 뭐였어요?

고 개인적으로 개를 무서워해요. 근데 캄보디아는 개를 풀어둬요. 식사를 밖에서 할 때도 있었는데 히응이라는 큰 개가 자꾸 왔어요. 덕분에 발을 내릴 수가 없어서 조금 힘들었어요. (웃음)

철 저는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벌레가 힘들었어요. 특히 저녁 때제 때 반주를 하느라 불빛을 제 쪽에만 켜면 쫓을 수도 없이 벌레한테 당해야 했거든요.

동물 친구들(?)이 가장 힘들었다니, 조금은 의외네요. 갈등 같은 건 없었나요?

철 함께한 열두 명의 나이도 다양하고 개성도 다들 강해서 걱정했는데, 제 기준에 큰 다툼은 없었어요. 누군가 기분이 나빠서 언성이 높아지려고 하면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아, 그랬어? 힘들었겠네.” 하고 대나무숲처럼 들어만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풀리곤 했어요.

서로 힘든 상황에서 배려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제일 많이 했던 말은 “우리 편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였어요. 내가 굶은 일 한 번 더 하면 다 같이 좋아진다는 생각으로요. “지치지 말자.”는 말도 많이 했어요. 몸이 힘들니까 더 날카로워지기도 했지만, 최대한 같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편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

“지치지 말자.”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현지에서 지내는 동안 들었던 가장 인상 깊은 말은 뭔가요?

고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겁도, 두려움도 많다 보니 현지에서도 한계점에 부딪힐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함께 활동한 단원 중 한 언니가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약하지 않다’고 말해주었던 게 생각나요.

띠앗누리의 경험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나요?

철 귀국 후 후속모임 주제가 ‘자신의 틀을 깨고 한계점을 극복하자’였어요. 지금 저에게 띠앗누리가 그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현지에서 단원들과 만든 노래를 가지고 버스킹 공연 같은 걸 해보려고 하거든요. 생각만 하는 대신 해보자고 하게 된 것 자체가 스스로의 한계를 조금씩 넘는 한 걸음인 것 같아요.

고 띠앗누리 하면서 저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많이 했어요. ‘나도 내면에 이런 힘이 있구나’ 하고요. 평일에는 학교만, 주말에는 성당만 다니면서 저를 가두고(?) 살았거든요. 최근에 휴학하면서 처음으로 알바를 시작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내가 띠앗누리도 갔다왔는데 이걸



박종철 하상바오로



고혜민 로사

못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도전이
더 뜻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인솔자로서 어떠세요?

박 별자리처럼 은근히 빛을 발하면서
안내하는 역할, 그런 프로그램이고
싶었어요. 이 활동이 각자에게
다가가는 형태나 지점은 다르겠지만,
결국 지구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떤 개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들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이
친구들의 모습, 그리고 띠앗누리를
생각할 때 너무 기대되고 설렙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띠앗누리 홍보 한 마디 해주세요!

고 저 또래의 대학생 친구들, 20대
청년들이 많이 띠앗누리를 다녀오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성장할
기회인 것 같아요.

박 띠앗누리를 '지구촌과 나를
연결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라고
소개해요. 지구촌 이웃들을 만나보고
싶거나, 사람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띠앗누리 만한 게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특별한 경험이 어떤 건지는
정말 체험하면 알게 돼요.

※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띠앗누리 26기'를 검색하면 활동 내용이
상세하게 담긴 띠앗누리 26기 후기 영상과
단원들이 만든 노래, '겨울, 안에 여름'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습니다.

...

왠지 힘든 오늘 눈을 떴을 때 여름
잊어버린 듯 했지만 알아 사실은 겨울
초승달이 언젠가는 보름달이 되듯
볼 수 있어 눈빛 안에 너라는 빛을

소중한 눈빛 함께한 불빛 너를 그려
간지러운 설렘 붉어진 마음 나를 그려

...

노래 <겨울, 안에 여름> 중 일부,
띠앗누리 26기 한명 한명의 재능과 의견을 모아 완성했다.

생애첫기부 & 기념일기부

생애첫기부는 사랑스러운 아이의 기념일에 잔치를 열어주는 대신 그 비용을 고스란히 아프리카·아시아의 빈곤한 친구들과 국내의 백혈병·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래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행복한 나눔입니다.

참여신청 및 문의 02)727-2299



김주원 안젤라, 김도현 아우구스티노,
김주하 비르짓다



김정연 마리스텔라 가족

생애첫기부

Aden Maru Slovick 2018.02.01생 父 Bill Slovick 母 신영준 | **강비주** 2017.12.13생 父 강병우 母 백합 | **경도윤 율리아노** 2016.10.21생 父 경영석 母 전주빈 | **고도현 다니엘** 2015.05.22생 父 고우창 母 조인훈 | **고우진 레오** 2018.02.18생 父 고도원 母 박유나 | **고은준** 2018.02.19생 父 고영섭 母 신지현 | **권현아 크로틸라** 2012.08.28생 父 권주호 母 권나영 | **김기빈** 2018.01.15생 父 김강덕 母 장윤정 | **김도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2017.01.09생 父 김영민 母 김보애 | **김동연** 2018.01.07생 父 김현구 母 이창윤 | **김동진** 2018.02.03생 父 김지 母 선충현 | **김소민** 2017.08.19생 父 김진오 母 이한나 | **김수겸 미카엘** 2018.01.13생 父 김영호 母 신희선 | **김수한** 2017.12.17생 父 김준구 母 김수정 | **김시연** 2018.01.15생 父 김기호 母 박세은 | **김여준** 2017.10.07생 父 김도경 母 손정아 | **김우솔** 2018.05.27생 父 김한철 母 김은지 | **김우재** 2018.03.07생 父 김일훈 母 엄주연 | **김원우 알렉산더** 2017.01.30생 父 김상서 母 이경민 | **김윤하 마리스텔라** 2018.11.07생 父 김두일 母 권명하 | **김재민 안드레아** 2018.02.19생 父 김경도 母 김혜성 | **김재이 마리스텔라** 2017.12.12생 父 김태형 母 이보람 | **김정연 마리스텔라** 2018.03.30생 父 김현석 母 안은경 | **김지민 가브리엘라** 2017.12.05생 父 김영근 母 박혜림 | **김태주** 2017.06.12생 父 김진성 母 채은경 | **나유단** 2014.12.13생 父 나산하 母 이현정 | **나유안** 2017.02.22생 父 나산하 母 이현정 | **남채연** 2018.02.13생 父 남승원 母 송수연 | **노윤석 루치오** 2018.04.25생 父 노승모 母 황경연 | **도강민** 2018.01.15생 父 도태환 母 김혜정 | **명수훈** 2018.02.12생 父 명준우 母 김정은 | **문채현 스티븐** 2017.11.17생 父 문원희 母 백현옥 | **박래오 레오** 2018.01.05생 父 박성민 母 김혜선 | **박서운 비아** 2003.01.18생 父 박승환 母 임명하 | **박서휘 안나** 2018.01.29생 父 박성재 母 서자은 | **박성현 루카** 2013.01.27생 父 박영래 母 배봉주 | **박이현 에밀리아** 2018.01.29생 父 박성호 母 이경희 | **박재민 소피아** 2016.04.09생 父 박우성 母 최효진 | **박재나** 2018.11.09생 父 박철민 母 박혜선 | **박주아** 2017.11.01생 父 박승훈 母 이승인 | **박찬서** 2017.01.29생 父 박영목 母 박은지 | **박태준** 2018.02.16생 父 박홍국 母 정혜정 | **배기람 글로리아** 2012.10.23생 父 배재민 母 하하하 | **배규리 리타** 2018.01.10생 父 배준하 母 이종은 | **배서형 라파엘라** 2017.09.26생 父 배재민 母 하은하 | **변지현 에리코** 2018.02.27생 父 변세형 母 정진영 | **송연서** 2017.12.21생 父 송재훈 母 김다영 | **송하린 글라라** 2015.02.16생 父 송경환 母 조지현 | **신준호** 2018.11.08생 父 신동현 母 장지현 | **신지윤** 2018.01.15생 父 신영환 母 정지선 | **심지우** 2017.10.14생 父 심상범 母 문지희 | **양지안** 2018.02.07생 父 양영범 母 오희정 | **예재창 프란치스코** 2015.12.17생 父 예희열 母 박민지 | **유민** 2018.12.15생 父 유병현 母 윤지혜 | **유서을 라파엘라** 2017.04.27생 父 유경남 母 정유리 | **유시오** 2018.12.19생 父 유경우 母 김연주 | **유진** 2018.01.14생 父 유종민 母 최윤정 | **윤서연 에밀리아** 2015.11.12생 父 윤정은 母 권유리 | **윤서진 글라라** 2015.11.12생 父 윤정은 母 권유리 | **윤혜원 아네스** 2018.01.29생 父 윤여향 母 이민주 | **이다복(태영)** 2019.04.03생(예정) 父 이진호 母 정희경 | **이로하** 2018.09.16생 父 이영도 母 한유은 | **이서을** 2017.12.14생 父 이희형 母 신소영 | **이승준** 2018.11.16생 父 이상윤 母 박지원 | **이시을** 2015.10.20생 父 이종하 母 이민아 | **이시을 요엘** 2018.02.09생 父 이규연 母 이진미 | **이애리** 2018.01.16생 父 이준서 母 박주현 | **이윤솔 디오니시오** 2017.12.22생 父 이근영 母 조재현 | **이정은** 2011.12.26생 父 이관식 母 한인희 | **이재우 사무엘** 2013.01.28생 父 이철 母 박지연 | **이주환** 2018.02.19생 父 이상호 母 윤주희 | **이준오 유스티노** 2011.04.17생 父 이승호 母 김이정 | **이지안** 2018.01.19생 父 이상우 母 조수영 | **이지안 나탈리아** 2018.02.07생 父 이순규 母 유승연 | **이지윤** 2018.01.09생 父 이현석 母 이윤아 | **이태이 루치아** 2015.06.30생 父 이상철 母 김재현 | **이해민 크리스티나** 2017.01.07생 父 이도관 母 김선영 | **임서안** 2018.01.04생 母 이은희 | **임서안 다미안** 2014.01.02생 父 임민혁 母 신현경 | **임지안** 2015.04.04생 母 이은희 | **장보윤** 2018.10.06생 父 장현찬 母 이승민 | **장하준 바오로** 2012.04.24생 父 장종희 母 노옥신 | **정수아** 2018.09.20생 父 정재업 母 최윤정 | **정미은 레오** 2018.02.08생 父 정현호 母 김준희 | **정지우** 2018.02.26생 父 정현도 母 김지연 | **제갈서빈** 2017.01.16생 父 제갈민필 母 박정아 | **조재민 다니엘** 2017.12.17생 父 조광재 母 김미선 | **조유찬** 2019.02.14생 父 조민영 母 김가희 | **조하영** 2017.01.28생 父 조종욱 母 이유림 | **조하진** 2018.09.07생 父 조일홍 母 정주리 | **조호준 사도요한** 2009.12.27생 父 조우성 母 김영하 | **최복 노엘라** 2017.11.26생 父 최현우 母 이은주 | **최서원** 2018.10.14생 父 최정호 母 이혜진 | **최이은** 2018.11.21생 父 최현준 母 최혜원 | **최태민 다니엘** 2017.09.06생 父 최인호 母 정유나 | **쿠쿠(태영)** 2019.04.25생(예정) 父 서정주 母 이수진 | **한신** 2017.12.14생 父 한수호 母 임지혜 | **호하담 가타리나** 2018.02.05생 父 호동규 母 임소은

두 번째 기부

고은한 가브리엘 2015.12.03생 父 고동현 母 현경원 | **고태을** 2017.12.21생 父 고명현 母 편혜준 | **고휘 다니엘** 2014.01.20생 父 고정진 母 한진민 | **권의담 루카** 2016.12.04생 父 권수영 母 이지혜 | **김도현 아우구스티노** 2007.01.25생 父 김석진 母 임경아 | **김서연 클라라** 2013.02.01생 父 김석주 母 오주경 | **김서원 라파엘** 2016.12.09생 父 김태희 母 박미영 | **김승연 바오로** 2016.01.26생 父 김창우 母 임은지 | **김아연** 2016.11.07생 父 김만봉 母 김소라 | **김아정** 2005.02.10생 父 김우상 母 강영지 | **김예서 바실리아** 2001.01.06생 父 김준현 母 노자영 | **김주원 안젤라** 2010.12.07생 父 김석진 母 임경아 | **김주하 비르짓다** 2012.04.03생 父 김석진 母 임경아 | **김지호** 2014.12.23생 父 김성규 母 김경서 | **김차민** 2018-03-02생 父 김성욱 母 박선영 | **김채운 헬렌** 2018.02.05생 父 김상수 母 윤순영 | **김하진** 2017.02.14생 父 김홍석 母 정지연 | **류민혁 루카** 2010.08.02생 父 류진호 母 고나연 | **류윤서 엘레나** 2013.06.15생 父 류진호 母 고나연 | **류재준 라파엘** 2017.01.05생 父 류명현 母 정재경 | **문정현 스테파노** 2017.02.27생 父 문성원 母 이아람 | **박서하 미카엘** 2015.11.25생 父 박성훈 母 서혜민 | **박소을 제노페파** 2017.01.02생 父 박영준 母 오하야 | **박시은 한나** 2015.12.18생 父 박창철 母 한계영 | **박시준** 2016.12.05생 父 박종승 母 정수민 | **박유찬** 2015.02.26생 父 박정호 母 서성해 | **박지안** 2016.02.05생 父 박진우 母 김가란 | **서도희 소피아** 2015.09.08생 父 서정주 母 이수진 | **서이아 이아** 2016.02.05생 父 서태민 母 박민희 | **송재을 닷** 2016.12.11생 父 송용진 母 조아라 | **송민지** 2005.04.02생 父 송대식 母 최지영 | **송예림** 2018.01.04생 父 송창종 母 장정운 | **송이현 임마누엘** 2016.12.17생 父 송진우 母 유지애 | **송하성** 2002.10.25생 父 송대식 母 최지영 | **신희주** 2016.10.08생 父 신태현 母 김선영 | **안수정 도미니카** 2018.02.05생 父 안희준 母 이자영 | **양소을** 2017.06.20생 父 양형진 母 박지은 | **양소은** 2017.12.23생 父 양승욱 母 노국진 | **양하은 플로라** 2016.01.01생 父 양두영 母 김미선 | **염태을 하삼바오로** 2016.09.25생 父 염정훈 母 박시원 | **윤리현 레이** 2017.01.17생 父 윤재환 母 최혜나 | **윤지호** 2017.01.17생 父 윤재환 母 최혜나 | **이민희** 2018.01.23생 父 이상민 母 허주연 | **이수아** 2017.01.23생 父 이영준 母 조아라 | **이유하 다니엘** 2018.02.20생 父 이진웅 母 유상희 | **이준범** 2009.05.16생 父 이도구 母 나유순 | **이진형 토마스 모어** 2017.02.06생 父 이상용 母 신은영 | **임리야 리아** 2017.02.09생 父 임순택 母 이주아 | **임소정 사라** 2016.10.11생 父 임종명 母 김설주 | **정소은** 2017.03.05생 父 정근재 母 유선숙 | **정우혁** 2017.01.27생 父 정재구 母 허연미 | **정미안** 2018.02.08생 父 정영관 母 이지현 | **조은성** 2016.07.24생 父 조현민 母 손준현 | **차디은 플로라** 2016.12.28생 父 차준영 母 김혜정 | **차윤솔 크리스티나** 2015.05.07생 父 차성민 母 장진아 | **최선우 라파엘** 2015.04.18생 父 최정배 母 김은진 | **최윤선 비아** 2009.11.25생 父 최규영 母 박현정 | **표이안 레미지오** 2017.10.01생 父 표용하 母 이주호 | **하은설** 2017.01.28생 父 하창수 母 허현지 | **한지안** 2016.06.17생 父 한현석 母 배지영 | **홍지안** 2013.03.25생 父 홍준호 母 이병연 | **황준영 미카엘** 2016.02.11생 父 황승욱 母 유희영

세 번째 기부

강유빈 미카엘라 2016.02.09생 父 강광훈 母 이혜민 | **고민서** 2016.01.05생 父 고윤석 母 성민정 | **고휘 다니엘** 2014.01.20생 父 고정진 母 한진민 | **김다인** 2017.02.05생 父 김영삼 母 이재은 | **김다인 스티븐** 2000.04.19생 父 김동엽 母 김경희 | **김도윤** 2016.01.12생 父 김현호 母 박인영 | **김도훈** 2016.01.12생 父 김현호 母 박인영 | **김동규 루카** 2017.01.26생 父 빈센트 들로르 母 김태희 | **김동하 사도요한** 2010.12.04생 父 김현중 母 이주연 | **김리호 루치아** 2016.01.01생 父 김호승 母 최유리 | **김아현 엘리사벳** 2013.10.09생 父 김우상 母 강영지 | **김유하 플로라** 2015.11.30생 父 김혁진 母 정세은 | **김은빈 스티븐** 2013.08.12생 父 김진우 母 이나래 | **김은송 그라시아** 2017.01.08생 父 김명규 母 최인경 | **김재승 아나니오** 2015.06.24생 父 김원섭 母 정미연 | **김재원 마르티노** 2015.07.01생 父 김일규 母 최민정 | **김종 프란치스코** 2016.01.24생 父 김근 母 오정은 | **김채은 라파엘** 2014.12.12생 父 김상훈 母 장은선 | **김태을** 2016.02.05생 父 김형석 母 김은정 | **문서현 에스텔** 2015.10.10생 父 문원희 母 백현옥 | **문재우 미카엘라** 2009.09.29생 父 문준우 母 현정원 | **문재원 안젤라** 2006.02.03생 父 문준환 母 조지연 | **문형빈 알베르토** 2005.04.05생 父 문준우 母 현정원 | **박주원 에바** 2012.09.18생 父 박성호 母 이경희 | **박재원 에스텔** 2015.02.16생 父 박성호 母 이경희 | **서승록 루카** 2018.09.19생 父 서동환 母 이정윤 | **성재은 에스텔라** 2017.01.16생 父 성시준 母 채희주 | **송민하** 2015.12.03생 父 송대식 母 최지영 | **양하은 플로라** 2016.01.01생 父 양두영 母 김미선 | **임지형 니콜라오** 2015.12.01생 父 임진국 母 박은진 | **유재현 마르셀리노** 2016.01.31생 父 유병욱 母 전병욱 | **이소민 라파엘라** 2015.10.02생 父 이진승 母 임현주 | **이유진 스테파노** 2016.03.14생 父 이윤원 母 석민주 | **이지훈 베네딕토** 2016.01.20생 父 이흥희 母 마하림 | **장도원 켈리** 2010.11.29생 父 장재업 母 여은혜 | **정지오** 2016.01.22생 父 정찬관 母 채보애 | **조영우 노엘** 2015.12.17생 父 조지현 母 양미혜 | **조유빈 에밀리아** 2015.08.02생 父 조지훈 母 이수경 | **조윤 프란치스코** 2014.12.22생 父 조주연 母 정희훈 | **조혜을** 2015.11.30생 父 조윤희 母 정수란 | **차윤우 테오도로** 2012.12.01생 父 차성민 母 장진아 | **최하은 로즈마리** 2017.01.31생 父 최형현 母 김진경 | **최밖을** 2013.12.16생 父 최재기 母 김경자 | **최우진 라파엘** 2015.12.28생 父 최봉주 母 이정은 | **한지우** 2016.01.18생 父 한용기 母 이인경



변지혁 에리코, 변지훈 다니엘



손준민 안토니오, 손준혁 올리오



이윤승



한예슬 빅토리아 가족

네 번째 기부

강서준 니콜라오 2014.12.20생 **父** 강동욱 **母** 김민경 | **강우정 가브리엘라** 2016.03.08생 **父** 강만보 **母** 채원영 | **고휘 다니엘** 2014.01.20생 **父** 고정진 **母** 한진민 | **구자균** 2015.01.12생 **父** 구동희 **母** 박민지 | **김단아** 2014.03.17생 **父** 김병철 **母** 구인희 | **김민석 가브리엘** 2012.12.27생 **父** 김성훈 **母** 정효주 | **김민진 가브리엘라** 2008.12.15생 **父** 김성훈 **母** 정효주 | **김시우 프란치스코** 2013.01.08생 **父** 김중보 **母** 백소연 | **김아윤** 2012.04.26생 **父** 김우상 **母** 강영지 | **김은총 프란체스카** 2015.02.24생 **父** 김명규 **母** 최인경 | **김주원 프란치스코** 2014.02.18생 **父** 김기홍 **母** 곡수영 | **김지아** 2015.04.20생 **父** 김진구 **母** 김정은 | **박서진 프란치스코** 2015.01.08생 **父** 박보현 **母** 서지은 | **박수현 안드레아** 2015.12.02생 **父** 박동현 **母** 정미영 | **박시현 올리비** 2012.04.09생 **父** 박성준 **母** 김동연 | **박준후** 2015.02.24생 **父** 박진우 **母** 박지은 | **박지안** 2015.01.17생 **父** 박용규 **母** 최유미 | **백지호 스텔라** 2014.11.14생 **父** 백승호 **母** 이미령 | **서도연 소화데레사** 2013.10.01생 **父** 서정주 **母** 이수진 | **서우재 제노** 2016.04.20생 **父** 서법석 **母** 이경미 | **우상용** 2016.01.10생 **父** 우도희 **母** 정승아 | **유승재 파비아노** 2014.08.20생 **父** 유혁주 **母** 이고은 | **유지안 안젤라** 2014.10.10생 **父** 유창현 **母** 송예원 | **유현서 에데니아** 2015.01.16생 **父** 유도원 **母** 이주인 | **유혜인 아녜스** 2012.04.11생 **父** 유창현 **母** 송예원 | **이다빈** 2014.12.16생 **父** 이경수 **母** 전영민 | **이다현 바틸다** 2016.01.09생 **父** 이준영 **母** 윤나리 | **이무원 벨라데타** 2016.02.13생 **父** 이석영 **母** 김혜린 | **이성하 비오** 2012.08.27생 **父** 이용환 **母** 박설희 | **이아을 벨라데타** 2015.04.16생 **父** 이인열 **母** 이선미 | **이예준 다니엘** 2015.02.21생 **父** 이규행 **母** 김윤희 | **이주원** 2016.04.08생 **父** 이상훈 **母** 이민선 | **이주혁 노엘** 2014.12.20생 **父** 이상호 **母** 윤주희 | **이하을** 2018.04.02생 **父** 이세영 **母** 최유리 | **정희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2015.03.23생 **父** 정다운 **母** 이승은 | **최맑음** 2011.11.07생 **父** 최경자 **母** 김경자 | **최서현** 2015.01.01생 **父** 최환영 **母** 공명수 | **최서연 베로니카** 2015.02.16생 **父** 최희환 **母** 이은정

다섯 번째 기부

고휘 다니엘 2014.01.20생 **父** 고정진 **母** 한진민 | **김리우 올리안나** 2011.02.16생 **父** 김현수 **母** 임세정 | **김태극 요셉** 2014.03.01생 **父** 김준혁 **母** 김수영 | **노이진 마리아** 2015.02.17생 **父** 노상범 **母** 소은희 | **송이재 테오도로** 2013.12.22생 **父** 송진우 **母** 유지애 | **염자유 에디트** 2012.01.13생 **父** 염정훈 **母** 박지원 | **윤석준 프란치스코** 2014.07.30생 **父** 윤찬현 **母** 한희희 | **이민건 토마스 아퀴나스** 2009.01.28생 **父** 이재관 **母** 양미경 | **이준희** 2013.12.15생 **父** 이병환 **母** 임소현 | **정연우** 2014.01.21생 **父** 정유석 **母** 신경하 | **정연우 켈라** 2012.01.28생 **父** 정재광 **母** 홍지숙 | **조예서 올리아나** 2013.04.22생 **父** 조광재 **母** 김미선 | **최희은** 2014.01.13생 **父** 최유석 **母** 이수현 | **한예슬 빅토리아** 2013.11.20생 **父** 한상철 **母** 신지수

여섯 번째 기부

강건우 2013.01.11생 **父** 강성민 **母** 김고은 | **강시우** 2013.01.11생 **父** 강성민 **母** 김고은 | **김규리 클라라** 2012.08.06생 **父** 김창우 **母** 임은지 | **김동욱** 2013.03.02생 **父** 김봉재 **母** 장은경 | **김태근 비오** 2014.01.06생 **父** 김진 **母** 이채형 | **김해은 세례자요한** 2013.01.21생 **父** 김경은 **母** 박은선 | **박준현 디오테오** 2012.01.31생 **父** 박종연 **母** 김정은 | **오은수 마리아델라** 2013.12.29생 **父** 오재필 **母** 김현영 | **유서진 에스더** 2012.08.10생 **父** 유혁주 **母** 이고은 | **이도현 대건 안드레아** 2012.07.05생 **母** 백중순 베로니카 | **이요한 요한** 2013.10.23생 **母** 백중순 베로니카 | **이정민 세실리아** 2013.11.18생 **父** 이형석 **母** 박진영 | **이재원 에스텔** 2014.02.17생 **父** 이진호 **母** 정희경 | **임진욱 사도요한** 2012.12.11생 **父** 임치환 **母** 민지혜 | **장민서 소피아** 2013.09.09생 **父** 장성용 **母** 오경숙 | **조민재 미카엘** 2013.01.14생 **父** 조준일 **母** 진민경 | **지서윤** 2013.02.11생 **父** 지대현 **母** 이기량 | **허상범 루카** 2014.01.11생 **父** 허대영 **母** 김정숙 | **홍준기 야고보** 2012.01.13생 **父** 홍성철 **母** 변정연

일곱 번째 기부

김지희 글라리아 2012.02.15생 **父** 김익균 **母** 김지영 | **민세울** 2012.02.13생 **父** 민정재 **母** 이선영 | **박소원** 2012.03.05생 **父** 박진우 **母** 박지은 | **박소이** 2012.03.05생 **父** 박진우 **母** 박지은 | **심세현 안드레아** 2012.06.19생 **父** 심재윤 **母** 이근정 | **오승우 바오로** 2012.02.15생 **父** 오세훈 **母** 송지혜 | **유진민** 2010.02.25생 **父** 유형석 **母** 이지원 | **이세인 사무엘** 2012.11.18생 **父** 이윤준 **母** 우혜영 | **이수담 아녜스** 2012.01.22생 **父** 이상환 **母** 조경희 | **이지후** 2012.01.31생 **父** 이준수 **母** 김혜진 | **임지우 아녜스** 2012.01.31생 **父** 임병권 **母** 이정선 | **임지호 발렌티노** 2008.02.13생 **父** 임성익 **母** 김미리 | **최지인 안나** 2012.01.29생 **父** 최상규 **母** 이승은 | **한시윤 로사리아** 2011.10.07생 **父** 한준석 **母** 고은옥

여덟 번째 기부

김동훈 안토니오 2011.01.17생 **父** 김현욱 **母** 한주희 | **심세현 안드레아** 2012.06.19생 **父** 심재윤 **母** 이근정 | **이해인 프란체스카** 2013.12.04생 **父** 이진호 **母** 조갑희 | **임서연 헬레나** 2009.07.11생 **父** 임치환 **母** 민지혜 | **장준하 니콜라스** 2007.12.27생 **父** 장성용 **母** 오경숙 | **장현서 카트린** 2010.06.09생 **父** 장성용 **母** 오경숙 | **정희원 돈보스코** 2010.11.22생 **父** 정다운 **母** 이승은 | **한시윤 로사리아** 2011.10.07생 **父** 한준석 **母** 고은옥

아홉 번째 기부

박성민 바오로 2010.02.10생 **父** 박동현 **母** 정미영 | **윤정훈 안셀모** 2011.02.08생 **父** 윤용덕 **母** 제민영

열한 번째 기부

이슬아 캐서린 2010.12.10생 **父** 이병동 **母** 김혜원 | **심우형 다니엘** 2009.05.15생 **父** 심재윤 **母** 이근정

열네 번째 기부

이아람 노엘라 2016.01.19생 **父** 이종수 **母** 박우정

열여섯 번째 기부

이아람 노엘라 2016.01.19생 **父** 이종수 **母** 박우정

스물두 번째 기부

이승우 콘스탄티노 2014.04.12생 **父** 이종수 **母** 박우정

아름다운 부부의 기부

고재인 시몬 & 김양희 세실리아 결혼 15주년 | **김만식 프란치스코 & 최정옥 프란체스카** 결혼 30주년 | **김승희 요셉 & 임은영 플라비아** 결혼 1주년 | **배성준 세례자요한 & 한혜주 글라디스** 결혼 1주년 | **송주호 발렌티노 & 정지인 요세피나** 결혼기념 | **신중현 알폰소 & 김청림 크리스티나** 결혼기념 | **안효봉 레오 & 김진선 파체** 결혼기념 | **정욱재 라파엘 & 김은영 비비안나** 결혼 10주년 | **조수환 안드레아 & 이의선 글라리아** 결혼기념 | **차원철 베드로 & 최서연 글로리아** 결혼 9주년 | **한준석 세례자요한 & 고은옥 카타리나** 결혼 10주년 | **홍충기 다니엘 & 윤소현 마르가리타** 결혼기념

축일 기부

신동우 안토니오

열 번째 기부

심우형 다니엘 2009.09.15생 **父** 심재윤 **母** 이근정 | **이슬아 캐서린** 2010.12.10생 **父** 이병동 **母** 김혜원

열세 번째 기부

고밀을 2015.06.11생 **母** 고영미

열다섯 번째 기부

이아람 노엘라 2016.01.19생 **父** 이종수 **母** 박우정

열여덟 번째 기부

김지원 루카 2014.09.20생 **父** 김성락 **母** 박민정

생일 기부

김주주 벨라데타 | **김은주** | **박소현 비비안나** | **박지혜 아녜스** | **박현선 안젤라** | **신혜림 로사** | **유혜선 안젤라** | **이여주 베로니카** | **이정환 마르첼로** | **이진호 스테파노** | **이형진 마르코** | **한상민 안젤라**

고인을 추모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기부

故 유영선 데레사 | **故** 이기민 바오로 | **故** 이현무 루제노 | **故** 조순희 | **하기천사 홍해성** | **익명**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기억하며

감사 기부

강동우 다니엘 건강한 연수 기념 | **거창 YMCA** 아기사포초단 뿌리박기/일세반 | **김서윤** 대학 합격 기념 | **김영한** 건강회복 기념 | **노희연** 안젤라메리치 성탄 기념 | **박리하** 월급기부 | **박상하** 사도요한 합격기념 | **박세원** 체라 대학교 입학 | **서동완** 승진 기념 | **이나래 소피아** 이사 기념 | **조현준** 미카엘 | **채희주 세실리아** 합격 기념

1 서울 방배4동성당 전신자 본부에 1천만 원 기부



서울대교구 방배4동성당 이동익 주임신부님과 우리농 회원들이 지난 3월 2일(토) 본부를 찾아 이사장 유경춘 주교님께 기부금 1천만 원을 전해주셨습니다. 전해주신 기부금은 본부 연말연시 캠페인 '부룬디 마을물길잇기 프로젝트 2'에 지원되어, 아프리카 부룬디 마카바 지역 6개 마을을 잇는 수로 공사와 배분 탱크, 공동급수시설 건설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방배4동 본당 공동체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2 필리핀 현장모니터링



1월 7일(월)~14일(월), 필리핀 바기오-벵게트 지역 가난한 농민들의 지속가능한 생계를 위한 유기농업 활성화 사업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본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Our Farmers' Haven의 삼자 협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농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유기농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계를 유지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3 월드프렌즈 NGO봉사단 캄보디아 귀국 및 파견



2018년 캄보디아 견달과 프놈펜에 파견되었던 오정현, 정지선 단원이 2월에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반티에이브리업 장애인 직업훈련센터와 캄보디아 예수회 봉사단에서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 개발활동을 지원했습니다. 2019년 3월에는 새롭게 신혜영, 이슬 단원이 파견되어 캄보디아의 이웃들과 함께 1년간 살아갈 예정입니다.

4 서울시와 '살사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

3월 14일(목),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는 자살유가족들이 삶의 새로운 희망을 찾는데 일조하기 위해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살자 사랑하자 프로젝트'의 줄임말인 살사프로젝트는 2015년부터 서울시와 4대 종교단체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범사회적 자살예방운동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의 수용과 애도를 지속적으로 돕고 심리, 정서적 보호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5 구로3동 성당, 자살예방캠페인 개최

3월 23일(토)~24일(일),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에서는 구로3동 본당 강당에서 열린 '생명 수호 전시 및 생명 체험 행사' 현장에서 자살예방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사랑과 신앙을 배우고 키우는 가정을 만들자'라는 목표로 진행된 이 행사에서 가족의 사랑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즉석 가족 사진을 촬영해 액자에 담아주는 이벤트와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6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 생명나눔 캠페인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을 맞아 선종 당일인 2월 16일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된 추모미사에서 생명나눔 캠페인을 시행하고 장기기증 희망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시행된 서울성모병원 캠페인에서는 장기기증희망 신청 당시의 김수환 추기경 모습과 추기경의 안구기증이 희망의 씨앗으로 퍼져나간 모습을 담은 홍보판넬을 함께 전시하여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올해에는 김수환 추기경의 생명존중과 나눔정신을 되살려 장기기증운동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7 수원교구와 함께하는 사순시기 생명나눔 캠페인

사순시기를 맞아 수원교구와 함께 생명나눔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3월 10일 수원교구 정자동 주교좌성당에서의 개막미사를 시작으로 3월 31일까지 총 17곳의 거점성당에서 헌혈 및 장기기증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성체성사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생명나눔을 통해 뜻깊은 부활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8 환우지원사업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2019. 1~3. | 단위: 만 원

지원사업	성명	병명	진료비
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치료비 지원	김OO	뇌종양	1,000
	이OO	무형성빈혈	1,000
	ROO	팔로네증후	1,000
	이OO	백혈병	1,000
장기기식 대기자 치료비 지원	이OO	기타 골수형성이상증후군	900
	김OO	만성 신부전 및 신장이식 수술	800
의료 사각지대 긴급환자 치료비 지원	김OO	유잉육종	700
	박OO	간암	1,000
	안OO	폐색전증 외 중환자실 진료	800
	POO	저체중아, 조산아	1,000
	양OO	뇌경색, 심근경색증	540
	정OO	뇌출혈	500

희망의 샘물을 선물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룬디 마을물길잇기 프로젝트 2탄
모금 완료보고



부룬디 마을물길잇기 프로젝트 2탄 개요

프로젝트 목표 부룬디 마캄바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 제공

기간 2018년 12월 1일 ~ 2019년 2월 28일

참여인원 및 모금액 512명 참여, 121,900,090원 모금

지난 2월에 마무리된 2018-2019 연말연시 캠페인 ‘부룬디 마을물길잇기 프로젝트’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부룬디 마캄바 지역 주민들에게 새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부룬디 마캄바 지역에 초등학교와 빗물 수집장치를 포함한 부대시설 건축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현지 아이들은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심각해지는 물 부족 문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에 본부는 마캄바 지역 6개 마을에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연말연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17-2018 ‘부룬디 마을물길잇기 프로젝트 1탄’을 통해 모아주신 기금으로 수원지 주변 공사를 위한 자재를 구입하고, 파이프라인 설치를 위한 도랑파기를 완료했습니다. 또 산꼭대기까지 물을 끌어 올려줄 전동 펌프 기초시설과 물 저장탱크를 완공했습니다.

이번 ‘부룬디 마을물길잇기 프로젝트 2’로 모아주신 후원금은 전동 펌프의 운영설비, 고지대의 물 저장탱크 전기설비, 인근 6개 마을을 잇는 파이프라인 및 급수대, 공동 급수시설 설치 등에 지원됩니다. 모든 과정은 현지 주민들과 지역 정부가 협력하여 설치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룬디 마캄바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루 100원 모으기 후원신청서

① 아래 신청서를 작성한 뒤, ②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③ **1666-1056**(문자수신 전용)으로 보내주세요.
전화(02)774-3388)와 홈페이지(www.obos.or.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름(세례명)

종교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적어주세요.

주소

소식지

☐ 수신

☐ 미수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 수신

☐ 미수신

이메일

뉴스레터

☐ 수신

☐ 미수신

후원분야

☐ 전체 사업 ☐ 국내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자살예방사업 ☐ 지구촌 빈곤 퇴치사업

☐ 해외 긴급구호사업 ☐ 국내 사회복지사업 ☐ 기타 ()

후원금액

☐ 3,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 기타 ()원

납부방법

☐ 자동이체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혹은 사업자등록번호)

이체일

☐ 매월 5일

☐ 매월 20일

☐ 카드결제

카드사명

소유자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년

월

이체일

☐ 매월 5일

☐ 매월 20일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 안 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① 수집 및 이용목적: 자동이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② 수집항목: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등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③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④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반드시 개인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① 제공받는 자: 국세청, (사)금융결제원, (주)휴먼소프트웨어, (주)휴머슨, NICE페이먼츠(주), 금융회사 ② 개인정보이용목적: 세액감면혜택제공 및 기부금 영수증 명세확인, 지로자동이체 출금동의 확인, 출금 신규등록 및 해지 통지, 결제정보 관리, 이메일 및 문자발송등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 계좌주 주민등록번호, 카드사명, 카드번호, 카드 유효기간등 ④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⑤ 신청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 행사 시 기부금 영수증 신청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www.obos.or.kr)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예금주)은 신청 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른 경우 예금주

(서명 또는 인)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월례미사 및 특강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는 그동안 본부를 후원해주시고, 활동에 함께해주신 분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2019 한마음한몸 월례미사 및 특강'을 마련하였습니다. 성모성월인 5월 '행복한 가정과 나눔 실천'을 주제로 한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본부장 김정환 프란치스코 신부님의 강의를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선물같은 시간이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요청드립니다.

일시

매월 마지막 금요일
특강 10시 30분 ~ 11시 30분
월례미사 11시 40분 ~ 12시 30분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신청방법

본부 홈페이지(www.obos.or.kr)
또는 전화(02)774-3488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강의는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며, 무료입니다.

월례미사 및 특강 내용

날짜	특강자	특강 주제
5월 31일	김정환 프란치스코 신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본부장)	행복한 가정과 나눔 실천
6월 28일	이정민 비오 신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부분부장)	성경 속의 사랑 실천
7월 26일	배우 손숙 헬레나	배우이자 나는 그리스도인 - 토크콘서트
8월 30일	윤용찬 (주)WHY약관교실 대표)	몰라서 못 받는 보험 - 특강 후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 1:1 무료 상담 및 보험금 청구 문의진행
9월 27일	나종민 알베르토 (바라봄 대표)	외국계 회사 지사장에서 착한 사진가로 변화된 삶의 이야기
10월 25일	신정훈 미카엘 신부 (가톨릭 대학교 성신교정)	실천하는 신앙인
11월 29일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국제협력팀	지구촌 생생정보통 모니터링 현장 이야기
12월 27일	주교 유경춘 디모테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이사장)	성체성사의 삶

※ 신청 취소를 원하시면 전화로 꼭 알려주세요. 취소 없이 불참하실 경우 다음 참여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